

“ 주께서 아시는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저희가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호 8:4)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밖에 나갈 때와 귀가할 때 반드시 복명하는 것이 효도의 자세다. 만일 자녀가 그의 하려고 하는 일과 또 하고 있는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이를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아는 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사울왕의 패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왕의 승리의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잘 했다는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모독 행위다.

शल령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둘째, 주님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물음과 허락은 다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라고 해서 허락받지 못한 일은 함부로 손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음이란 것은 통고와 달라서 상대방의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도 물은 일이라고 그의 허락 여부에 따라 행동해야지 아직 허락 받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믿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까지도 주의 허락 여부에 따랐으며(행 16:6) 다윗왕은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시 여하에 따랐다. (대상 17:4)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이나까 물론 허락하시겠지 하고 속단하는 것은 탈선을 범하게 된다.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며,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더라도 주의 허락을 기다려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 놓은 일이란 마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아서, 주의 아실 바가 못 되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결코 행복스런 일도 못된다.

셋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주님의 방법(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고 또 허락 받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 도대체 세속적 방법에 의한 교회 사업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님의 방법 아닌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단순한 호사가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두 손을 펴두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기도의 자세로 나쁘지는 않으나 그 손이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다.

거룩한 손이란 피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어야 한다. 구제의 손이어야 하고, 주는 손이 되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마음과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타심(利他心)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열납되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아시는 바다. 정성과 감사와 간질을 담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다. 핍박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병중에 있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 측은지심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 주듯이 하나님도 성도가 환난 중에 긍휼을 쏟으신다. 하물며 그 환난이 주를 위해 받는 환란임에라! 회개하는 시간을 주님은 열납하신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도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봄을 기다리는 2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였기에 안심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좌석스티커가 있는 자리에만 앉아 주시고, 가급적 넓은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20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리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예수, 사랑의 복음 ”

■ 막 5:25-34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다가와 주님의 걸옷 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고침을 받았고 주님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는 여인의 삼종교가 나타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주변과 어울려 공동체적 삶을 살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도 나설 수 없는 슬프고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이 더해졌고 삶은 비루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이 만남이 신체적 건강과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의 자격까지 얻게 되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4차례 반복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향해(7:50), 혈루증 여인에게(8:48), 불치병을 고침 받고 감사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17:19),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면서(18:42)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2.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버려진 인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외면과 혐오로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인생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눅 15장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거나 어긋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생에 대한 시기로 온 집안을 긴장조로 몰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했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집 나간 탕자였고, 한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이 가정을 구원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큰 아들을 달래고, 둘째를 품고 맞이하여 잔치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히 11:19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곡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3. 구원 받은 사람의 길
 여인을 고치신 이후 주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숨진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야야 일어나야지’라며 일으키셨고, 곧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마 9:31말씀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그들의 삶이 바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문과 냄새는 형체가 없으나 끝없이 퍼져 나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제대로 퍼뜨린 사람입니까? 누구에게서 예수님새가 나는 것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의 소문, 예수 사랑의 소문, 거룩하고 정의로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땅에 퍼뜨려야 할 소문은 예수님의 사랑이야기,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우리교회를 통해 예수사랑의 소문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43: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시 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19...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막 5:25-3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예수, 사랑의 복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563(41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김익환 목사, 설교 김익환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5:12 인 도 자
 찬 송 28(28) 다 합 께
 기 도 김광래 집사
 찬 송 200(235) 다 합 께
 성 경 창 12: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복이 되는 성도” ... 설 교 자
 * 찬 송 31(46)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전성희 권사 II부: 최복희 권사
 성 경 행 15:1-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안용곤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아스텐델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해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모세선교회 모임 / 6일(주일) 2부 예배 후 802호
2. 한나전도회 임직원 모임 / 6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3. 정기당회 / 9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마감 - 2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2월 2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2월 6일(주일)
- 세례 교육 : 2월 13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2월 13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결혼

1. 김대웅 군(5교구 김만윤 집사, 장호림 권사의 장남)과 안형진 양(안동헌 성도, 신해경 성도의 차녀) / 2월12일(토) 오후 1시 더러빌 1층 그랜드볼룸홀(02-541-8000) / 9호선 삼성중앙역 4번 출구

장례

1. 故 제국삼 성도(8교구 제오복 권사의 부친 유형석 집사의 장인) / 1월30일(주일) 별세, 2월3일(목)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95명	423명	2,018명	436명	1,752명



나의 눈물병

환자에겐 약병, 주정뱅이에겐 술병이 있듯이 천국시민에겐 눈물병이 있다. 하늘나라에 서는 그 병에 담겨진 눈물의 질과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스펀전 목사의 명언도 있지만 눈물이 없는 현대인의 삶은 허망해 보이기만 한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이나 감상에 젖은 눈물보다는 자기 죄를 통회하거나 남의 허물까지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며 흘린 눈물이 훨씬 향기롭다. 그리고 범사에 뜨겁게 감사하거나 기도할 때 떨어뜨린 눈물이 값진 것이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흘린 구령(救靈)의 눈물과 주님 위해 흘린 충성의 눈물은 순교자의 피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

나의 눈물병에 눈물이 한 방울씩 더할수록 하늘나라에서 받을 기쁨이 커지리라.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